

하나금융투 ‘이진국의 힘’... 종금사 넘어 초대형 IB 성공

〈하나금융투자 사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형사와 대등한 경쟁 해볼 것”
ROE 2년만에 8.0→9.1% 상승
1분기 IB 순이익 557억원 기록

하나금융투자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금사)로 새출발을 알렸다.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력을 확충한 하나금융투자는 투자은행(IB) 부문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만의 ‘영업 전략’이 또 다시 기록을 만들어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 승인했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5월 금융위에 종투자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 순항하는 자본 확대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3월, 12월 단계적으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종금사 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충족했다. 1분기 기준 자기자본은 3조2918억원이다.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증권사 중 8번째로 종금사 자리에 올랐다. 이에 따라 기업



하나금융투자 서울 여의도 본사 전경.

신용공여 업무,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를 할 수 있게되면서 사업의 보폭이 넓어졌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하나금융투자가 이번에 종금사로 지정되어 초대형 IB를 향해 한걸음 내딛었다”며 “신규사업인 신용공여 업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글로벌 IB 사업 등을 통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대형사와 대등한 경쟁을 해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기자본 4조원 충족을 통한 초대형 IB 진출 역시 임박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자본 확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만큼 추가적인 증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금융투는 “시장과 영업 환경, 경쟁사 동향, 그룹과 당사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영업하는 사장, 전략 통했다.

성공적인 자본 증자는 이진국 사장의 경영능력을 증명한 결과다. 실제 유상증자를 받기 위해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지주가 상장사인 경우 자회사에 증자를 해줬는데 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증자를 받는 입장에선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하나금융투의 ROE는 증자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2017년 1분기 ROE 8.0%에서 올해 1분기에는 9.1%를 기록했다. 자본금이 두 배 가량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100만원으로 8만원을 벌다가 올해는 200만원으로 18만원을 벌었다는 의미다.

IB부문이 크게 성장했다는 점도 주

목할 점이다. 올 1분기 기준 하나금융투 IB 부문 순이익은 557억원으로 부문별 순익 기여도는 62.6%를 달성했다. 업계에서도 IB 순익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높은 수익의 비결은 ‘사장이 직접 뛰는 영업’이다. 이진국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증자를 하면 그만큼 수익을 내야하는데 그 부담이 컸다”면서 “사장으로서 더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IB딜을 따낼 때 사장이 나서야 한다. 사장이 간다고 하면 최소 그쪽에서 만나는 준다.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취임 당시인 2016년 1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자기자본은 불과 2년 만에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2025년까지 비은행 계열사 이익 비중을 30%까지 달성하겠다는 하나금융투자의 목표에 하나금융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뱅크스 유튜브 구독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뱅크스(BanKIS) 유튜브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뱅크스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 후 퀴즈 정답을 입력해 응모한 사람 중 1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뱅크스 유튜브 채널에서는 온라인 증권방송 ‘이프렌드어(eFriend Air)’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지난 방송 다시보기’ 및 다양한 주식 투자 콘텐츠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한국거래소
세틀뱅크 코스닥상장 승인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세틀뱅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2002년 설립된 세틀뱅크는 간편현금결제, 가상계좌, 펌뱅킹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서비스업체로, ‘핀테크 시장의 대어’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572억원과 132억원이었고, 자본금은 46억3400만원이다.

매매거래는 오는 12일 시작되며, 공모가격은 5만5000원, 액면가는 5000원이다. 상장주선인은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다.

/채윤정 기자

태양광 인버터시장 40% 점유... 신재생에너지 ‘1번지’로

IPO간담회

윌링스

영업이익 58%, 당기순익 80% ↑
16~17일 청약, 25일 코스닥 상장



안강순 윌링스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IPO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윌링스

안강순 윌링스 대표는 “우리는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태양광에너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대표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윌링스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공개(IPO)를 선언하며,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같이 밝혔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윌링스는 태양광 전력변환장치(PCS) 개발 및 제조에 주력하고 있는 에너지기술 분야의 대표기업이다. 전력변환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인버터, ESS(에너지저장장치)용 PCS 등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EPC(설계·

조달·공사)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윌링스는 태양전지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인 태양광 인버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중소형 제품은 마진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대용량 제품에 주력해 왔다.

안 대표는 “국내 최초로 1MW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를 출시한 데 이어 2MW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여 점유율을 확대해 왔다”며 “3MW 태양광 인버터 제품도 조만간 출시해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실적 면에서도 이 회사는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최초로 매출액 500억원을 돌파하며 2017년 대비 43.3%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57.6% 증가한 51억원, 80.4% 늘어난 43억원을 달

성, 내실 다지기도 힘을 쏟고 있다.

윌링스는 앞으로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수상용 태양광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2017년 태양광, 풍력 등에 투자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한 만큼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발전량의 20% 비중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링스의 공모 예정가는 1만~1만 2500원으로 공모 주식수는 138만 2000주이며, 공모금액은 공모가 하단기준 138억원 규모다. 11일까지 수요예측을 거쳐, 16일과 17일 공모청약을 받은 후 오는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채윤정 기자 echo@

하반기 서울 20곳 1만1700가구 공급

분양가상한제 본격시행 전
물량 전년비 대폭증가 예상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규제 카드가 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시사를 비롯해 재건축 연한, 후분양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큰 변수다. 일반분양 분양가가 낮아질수록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승인과 관련해 분양가 책

정에 어려움을 겪던 주요 아파트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후분양까지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경우 서울 등의 도심지역 내에 신규주택 공급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분양된 단지가 주로 입주하는 오는 2021년에는 서울에서 신규 분양이 줄어들어 향후 2~3년 내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1일 부동산인포가 7~12월 중 서울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분양 물량을 조사한 결과 20곳, 1만 1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기 전

〈7월 이후 연내 서울 정비사업 예정 주요 분양〉

분양 시기	위치	사업(단지)명	총가구 (일반분양)	전용면적 (㎡)	시공사
7월	동대문 전동동 620-47일원 (청량리4구역)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1,425 (1,263)	84~117	롯데건설
7월	은평 응암동 225-1 (응암4구역 재건축)	e편한세상 백련산	358 (120)	59~84	삼호
7월	동작 사당동 41-17일원 (사당3구역)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514 (153)	41~106	대우건설
연내	강동 둔촌동 170-1 (둔촌주공)	둔촌주공 재건축	12,032 (5,056)	29~165	현대건설, 대우건설, HCD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연내	동작 흑석동 253-89일원 (흑석3구역)	흑석3 자이	1,772 (428)	59~120	GS건설
연내	성북 장위동 62-1일원 (장위4구역)	장위4 자이	2,840 (1,347)	39~97	GS건설
연내	동대문 용두동 753-9 (용두6구역)	용두6(래미안)	1,048 (480)	51~121	삼성물산

*분양시기 및 전용면적, 가구수는 시공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자료=부동산 인포

하반기 서울시 정비사업 분양물량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수도 있다.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 등

으로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철저한 자금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규성 기자 peace@